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및 고용성과에 관한 연구 -행정DB를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 경 아**

논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일모아 DB, 실업급여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의 통합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현황과 고용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중 약 56.83%는 상용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청년층 내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고용형태로 상용직을 선호하고, 사회 및 공학 전공계열 청년층 그룹에서 상용직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경험 청년층일수록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상용직 비중이 높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경영 및 행정 사무직이었다. 둘째, 청년층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저 연령, 중졸 이하, 인문 및 예체능 계열, 비자발적 실업 경험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공공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 그룹과 여성 청년층 및 취약 계층 청년들이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 이들 청년층 그룹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청년층 그룹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공적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핵심 주제어: 고용성과,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패널 회귀분석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3, J6, C5

투고 일자: 2024. 1. 29. 심사 및 수정 일자: 2024. 5. 30. 게재 확정 일자: 2024. 7. 8.

*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일모아 DB, 실업급여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의 통합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이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mail: kka@semas.or.kr

1.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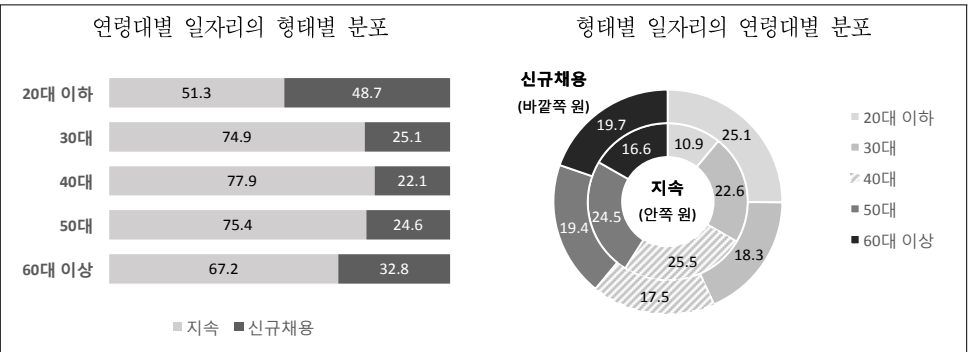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근로활동은 각 개인의 생애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실태는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5월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3,000개 증가한 2,074만 9,000개 증가에 그쳐, 7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약 25만개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 7,000개 감소, 40대 일자리는 2만 4,000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5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였다.

〈표 1〉 국내 연령대별 일자리 최근 동향

(단위: 만 개, %, 전년 동기 대비)

		'22년 4/4분기			'23년 3/4분기			'23년 4/4분기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 전체 일자리		2,045.6	100.0	49.1	2,054.2	100.0	34.6	2,074.9	100.0	29.3	1.4
연령 대 별	20대 이하	322.3	15.8	-3.6	319.8	15.6	-8.0	312.6	15.1	-9.7	-3.0
	30대	437.3	21.4	3.3	438.6	21.4	6.2	442.4	21.3	5.2	1.2
	40대	482.5	23.6	6.3	476.9	23.2	-0.4	480.1	23.1	-2.4	-0.5
	50대	466.1	22.8	14.7	468.7	22.8	9.9	477.4	23.0	11.3	2.4
	60대 이상	337.5	16.5	28.4	350.1	17.0	26.9	362.4	17.5	24.9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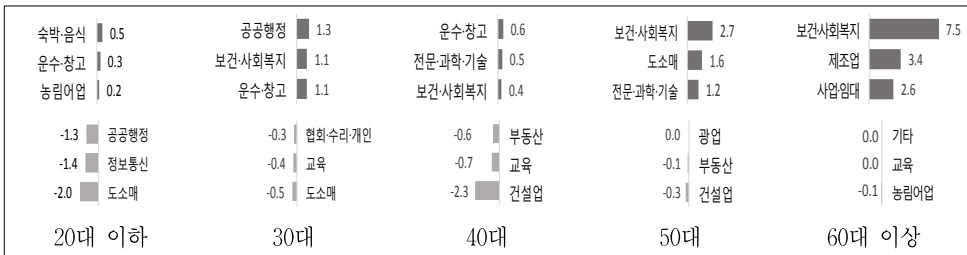
〈그림 1〉 '23년 4/4분기 연령대별 및 형태별 일자리 분포



자료: 통계청 (2024. 5. 22), 「2023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p. 15.

지난해 3분기에 청년층 일자리가 8만개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도 확대되었으며, 20대 이하 청년층의 경우 도소매업(-2만개), 정보통신(-1만 4,000개), 공공행정(-1만 3,000개) 등 업종에서 주로 감소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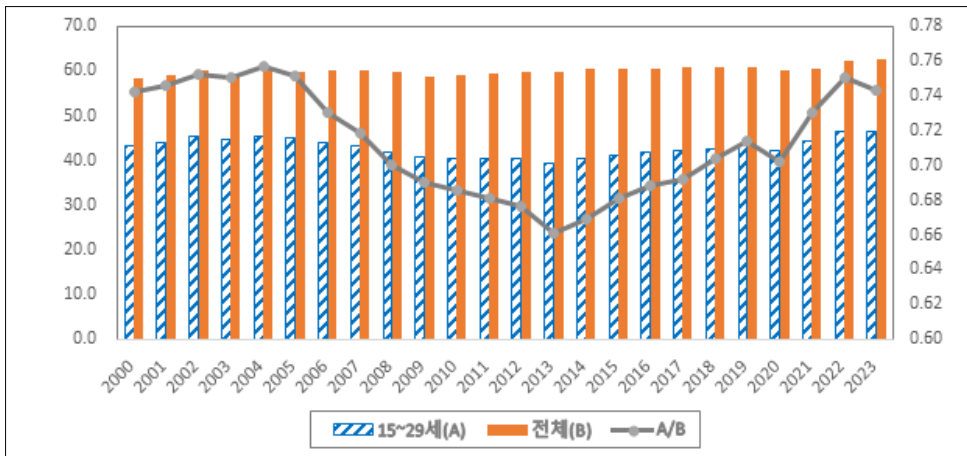
〈그림 2〉 '23년 4/4분기 연령대별 일자리 증감 상·하위 3개 산업 현황



자료: 통계청(2024. 5. 22), '2023sus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p. 18.

청년층¹⁾ 고용률은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표로, 국내 청년층 고용률은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잠시 하락하였다 다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인 2023년 다시 하락하였다.

〈그림 3〉 국내 청년층 및 전체 인구의 고용률 추이(2000년~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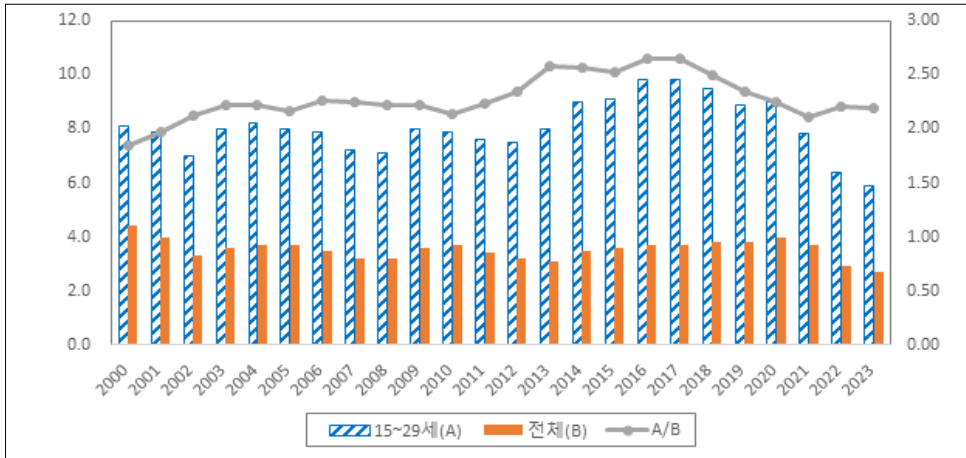
주: 구직기간 1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1) 해당 청년층 연령 기준은 15~29세 기준임.

국내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 대체로 8% 대 전후를 밑돌다, 2014년 9.0%~2018년 9.5%로 높아졌으나, 점진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이 2017년 2.65배에서 최근인 2023년에도 2.19배로 여전히 2배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림 4〉 국내 청년층 및 전체 인구의 실업을 추이(2000년~2023년)



주: 구직기간 1주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2023. 11. 15.)」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4개월간(7월~10월) 수행한 심층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층 구직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 특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²⁾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중심인력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적 현안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애로 및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2) 관계부처합동(2023. 11. 15.), “쉬웠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보도자료 및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참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일모아 DB, 실업급여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의 통합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참여 현황과 고용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년층의 인구학적 특성 및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 격차를 살펴보고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층에 대한 실태 역시 파악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 및 고용 성과와 고용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와 성과평가를 수행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연구의의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 있다. 제Ⅲ장에서는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제Ⅳ장에서는 국내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현황 및 취업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제Ⅴ장에서는 모형의 추정결과를 통해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유지에 대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Ⅵ에서는 연구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Ⅱ. 선행연구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고용성과 격차 문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행과 고용 성과에 대해 국내외에 걸쳐 다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이론적 논거를 포함한 관련 국내외 연구들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본 연구의 연구의의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1.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분류된다. 거시이론은 노동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채용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미시이론은 청년 구직자 개인이 갖는 다양한 특성과 가족배경, 사회적 연결망을 중심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청년층의 입직과정을 규명하고자 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보통 분석단위가 청년개인이기 때문에, 주로 미시이론에 기초하여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은 인적자본론, 지위획득이론, 신호이론, 사회자본론 및 직업 탐색론 등이 해당된다(김종성·이병훈, 2012, pp.238-240).

먼저 ‘인적자본론’은 청년층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개인의 인적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인적자본의 축적정도는 교육수준, 자격증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김안국·강순희, 2004; 박성재·반정호, 2006). 다만, 인적자본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그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의 경우 대기업정규직 취업확률이나 임금과 같은 첫 일자리의 질에 일관되게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확률이나 미취업탈출기간에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안주엽·홍서연, 2002; 이규용·김용현, 2003; 우해봉·윤인진, 2008; 남기곤, 2009).

다음으로 ‘지위획득이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Duncan(196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학력에 영향을 미쳐 이후 자녀에게 부친의 직업지위가 세습된다는 지위획득이론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가구소득, 아버지의 종사상지위, 직업 등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부모의 학력은 예상과 다르게 자녀의 취업확률에 부(-)영향을 미치거나(장기영, 2008),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남기곤, 2009; 이현성, 2010). 장기영(2008) 연구에서는 해당 결과를 부모학력이 높은 자녀의 취업확률이 낮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자녀는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유학 등으로 취업을 유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다. 한편, 가구소득은 취업확률, 미취업탈출기간, 첫 일자리의 질에 대부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여정·백병부, 2008; 김정숙, 2009).

다음으로 ‘신호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서열이나 인종, 성별 등의 다른 신호에 따라 기업이 개인을 선별한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특히 대학위세도(대학지명도나 대학서열)가 신호이론의 대표적 변인으로 분석되어져 왔다. 즉, 수능입학성적(이규용·김용현, 2003)이나 대학평가순위(성지미·안주엽, 2012) 정보를 활용하거나, 수도권 국공립대/수도권 사립대/비수도권 국공립대/비수도권 사립대(채구묵, 2007) 정보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 대학위세도(대학서열)는 취업확률, 미취업탈출기간 및 첫 일자리 질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론’은 각 개인을 둘러싼 여러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사회자본이 청년

층의 노동시장 이행성과를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이다(김종성·이병훈, 2012). 공식적인 직업탐색보다는 각 개인적 친분을 통해 더 쉽게 취업한다는 Granovetter(1974)의 연구 이후,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영(2008)에서는 구직경로가 공식적 경로(직업알선기관 등록, 신문잡지,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등)인 경우와 비교하여 비공식적 경로(교수님 추천, 친구·친지의 소개, 가족사업 등)인 경우 취업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탐색론’에서는 불완전한 일자리정보 때문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에 실패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이론은 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의 노력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김종성, 2013, p. 9). 직업탐색론 관련 연구는 소수이나 국내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의 직업탐색 행동의 성과를 분석한 안관영·조영환(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력서작성과 같은 예비적 탐색 행동이나 취업관련기관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과 같은 적극적 탐색행동이 취업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직활동시기를 분석한 김정숙(2009) 연구에서는 구직활동 시기가 빠를수록 대기업 정규직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설명하는 이론에 기초하여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잔존과 취약성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 다음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관한 연구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잔존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의 어려움은 국내의 경우에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해당 연구들은 노동생애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변화 양상과 청년층의 노동생애를 총체적인 시각(holistic view)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이들 선행연구들은 최근의 경력자 우대 경향 속에서 청년층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빈번하게 직장이동을 하거나,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면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고 추가 취업준비를 하거나, 취업을 포기하고 비정활인구가 되는 등의 다양한 이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행 형태를 특정 시점에서 포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국내에서도 청년층의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박진희·김용현, 2010; 문혜진, 2013 등).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을 분석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배열분석으로 이행과정을 분석하고, 배열간 거리에 기초하여 이행을 유형화하였다. 노동시장 이행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예를 들어,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와 일자리의 질(예) 직업, 고용형태, 사업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박진희·김용현(2010)에서는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15~29세 청년층의 10년간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직업의 이행과정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초점을 둔 대표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성별과 학력에 따른 이행유형의 차이만 확인했을 뿐,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문혜진(2013) 연구에서는 노동지위(직장 수, 사업장 규모, 고용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위기 전후의 청년 코호트의 노동경력을 비교하고, 코호트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해당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에서 이동형·실직형·미취업형의 불안정노동경력이 증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외환위기 전후의 청년코호트간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으로 그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변금선(2019) 연구에서는 한국 청년층의 이행 과정 변화를 생애과정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1960~1980년대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청년기 학교→노동으로의 이행 과정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1962~1984년생의 만19세~29세 연령시점의 노동시장 변화(학생, 재학근로, 취업, 미취업)를 집단기반분석을 적용해 유형화하고, 코호트간 유형 분포, 유형 특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을 반복하는 ‘중기 점진적 이행’이 발견되었고, 미취업 기간, 임시일용직 비중이 커지는 등 분절수준이 높아졌음을 제시하였

다. 특히 노동시장 이탈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저학력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재정 자원이 부족한 불리한 가족배경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시장 이행을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저자는 청년층의 이행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변화된 청년층의 이행을 인식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해당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에 경험하는 학교→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변화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 정책제언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분석 대상 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각 출생 시기 청년코호트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자료가 아니라는 점, 회고자료로 구성된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 그리고 제시된 정책제언이 대부분 사회복지정책에 집중된 점은 해당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다음으로, 오유진·김교성(2019)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개인마다 동일하지 않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을 관찰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일자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괜찮은 일자리’를 규정하고, 개인의 이행이 노동시장 내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행상태에 가사·양육을 포함하였으며, 성별과 학력을 교차하여 4개 집단별로 고유한 궤적의 유형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력에 따라 괜찮은 일자리 비율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고, 대졸여성은 대졸남성보다 세분화된 유형을 갖고 있었다. 고졸여성과 남성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고졸남성은 괜찮지 않은 일자리가 지속되는 반면, 고졸여성은 미취업상태와 가사·양육형태까지 나타나 복잡한 이행 궤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은 정부의 청년정책의 대상을 개별 또는 유형별 청년이 지닌 특징과 그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유형별 세분화된 정책 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유형을 고려한 청년집단별 노동이행 궤적을 관찰하고 이에 기반한 세분화된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연구의의가 높다고 보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이주미·김태완(2022)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난, 청년소득빈곤, 청년주거 빈곤 등 청년층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저자들은 특히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질적인 청년층 개개인에게 정책이 실효성 있게 연결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내 불평등 현황을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까지 면밀히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해소방안 마련과 정책 과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연령을 만 19~34세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열악하며, 소득과 자산 수준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청년층의 특성은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청년층 내 불평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저자들은 청년층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간 단계로 광주형, 군산형 일자리 등 기존 모델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일자리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보장 또는 사회보험 범위에 포괄되지 않는 비정형 근로자, 자영자 등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와 안전망 구축 역시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해당 연구는 청년층 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특성이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청년층 내 불평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의가 크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격차분석 관련 연구

청년층 노동시장 성과 격차와 관련하여, 전병유·이상일(2003) 연구에서는 고졸자의 노동력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취업률, 임금 및 고용안전성 등의 고용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고졸자가 소외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진국의 고용·실업정책을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연구는 고졸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고학력자에 비해 취약함을 상세히 제시한 연구이나,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고용·실업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인수·김기민(2005)에서는 청년 실업자의 60% 정도가 고졸 이하이며, 이들은 취업-실업-비경제활동인구를 오가는 노동시장 비정착자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저자들은 청년층 실업문제의 주요 원인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보고, 대졸자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심화, 학교-일자리 이행의 어려움의 문제, 탄탄한 중견기업의 부족과 중소기업 근로조건의 문제 등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청년층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대상 범위를 중위 수준의 취업 애로계층(당시 기준, 66만 명 수준)으로 하고 대학, 전문대학, 실업계, 인문계 등

학력별로 차별화된 대책을 운영해야함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 역시 저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이 매우 어려움을 제기한 연구로서 가치가 높으나, 이들 청년 취업 애로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한 부분은 한계로 보인다.

다음으로, Till von Wachter (2020) 연구에서는 경기 침체기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불운한 젊은 층 근로자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근로 불안정과 같은 지속적인 부정적 결과를 겪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실증 결과를 살펴본 결과, 노동 시장에서 10~15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 노동 공급 및 임금의 초기 효과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불리한 초기 노동 시장 진입여건이 여성의 출산시기와 출산 완료 시기, 결혼과 이혼, 범죄 행위, 태도, 위험한 음주 소비습관 등 다양한 부분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침체된 노동 시장에서 퇴출 될 경우 중년의 건강이 저하되고 사망률이 높아지며, 이는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악순환의 패턴을 동반한다는 실증적 결과 역시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초기 근로여건 및 소득의 불안정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상세히 제시한 연구로서 가치가 높다고 보이나, 해당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

최명섭·김준혁·최태림 (2021) 은 청년임금의 격차가 어떤 요인 및 집단에서 발생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청년층의 임금 격차 완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임금격차를 지니계수로 측정할 경우 2009년에 비해 2019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한데 그 요인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집단 간 격차가 여전히 전체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청년층 임금격차 문제는 집단 간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 4년제 대학졸업생, 서비스·판매직,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Kikuchi, S., Kitao, S. and Mikoshiba, M. (2021)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 시장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의 영향이 연령계층별, 성별, 고용유형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및 업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일본의 팬데믹 발생 이후 몇 달간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및 소득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위기 이전에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의 충격이 이후에도 증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

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타격을 더 많이 받았고, 고령 근로자보다 젊은 근로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평범하고 유연한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보다 비유연적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배우자 없이 유연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저숙련 노동자 집단이었다. 해당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일본의 근로자 간 성과격차가 얼마나 크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유형별 격차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4. 청년층 고용지원정책 효과 논의 관련 연구

우리나라에서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로, 먼저 이주호(1993)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청년층 고용문제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교육제도, 고용관행, 산학협동체계, 직업능력개발체계, 학교와 기업 간의 제도적 네트워크, 직업안정기구, 병역제도 등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직업기술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산학협동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후 1990년대 말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청년층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관련 연구들 역시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정인수(1999) 연구에서는 당시 청년층 실업률 급상승의 요인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고학력자의 하향취업현상에 따른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 확대로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청년층 실업대책의 주요 대상계층을 장기실업의 우려가 있는 무기능 고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직업훈련과 학교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병희(2003)에서는 대규모 사업체에 있어서의 노동력의 중·장년화에 주목하고, 기업이 경력 중시 채용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바뀌면서 중·장년층의 청년층 고용대체현상이 확대된 점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해당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채용 시 연령차별금지 강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완화와 체계

화된 근로경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학교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청년층을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유입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이슈이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실태와 고용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해외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이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더욱더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로서 먼저 Kluge, J., Puerto, S., Robalino, D., Romero, J.M., Rother, F., Jonathan Stöterau, Felix Weidenkaff and Marc Witte (2019) 에서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113 개의 영향 평가를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추출한 총 3,105개의 효과 추정치 중 1/3은 지원정책이 청년층 고용에 유의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메타 회귀분석을 통해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원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원 프로그램이 중간 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서 더 성공적이었으며, 둘째, 개입 유형은 설계 및 전달체계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러 서비스를 통합한 프로그램이 더 성공적이었으며, 넷째, 수혜자 프로파일링, 개별화된 후속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다섯째, 장기적으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김유빈·강신혁·김영아(2020)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 일자리 현황과 변화를 전망하고, 청년 일자리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향후 모습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파생된 단기 충격 완화를 위해 청년 고용 장려금 사업의 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청년지원 은 청년층에 한정해 연령을 제한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의 고용안전망과 재난 긴급 복지제도 등을 활용하는 등 전 연령대 전반을 포괄한 정책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Lambovska, M., Sardinha, B. and Belas Jr. J. (2021)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이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이 모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EU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

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EU의 25세 미만 실업률을 분석하고, 개별 국가의 실업률이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분석 후, 청년층 실업률 증가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국가뿐 아니라 체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 이전에 청년 실업률이 낮았던 국가까지 확대된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EU 회원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는 앞서 언급한 체코공화국으로, 2020년 말 기준 실업률이 2019년 말 수준보다 2.19배 증가했으며, 에스토니아는 전년 대비 청년 실업률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반면, 2020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연구의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인 시각 및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행의 구체적 과정을 파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유형별 및 특성별 격차를 다각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높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거시 통계자료나 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나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전후를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실업급여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와 같은 행정망 자료를 분석대상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생년 월, 성별, 가입 이력, 근로 시 직종, 월평균 보수총액(임금정보)과 해당 개인이 소속된 또는 소속되었던 사업장 정보(사업장지역, 규모, 산업, 종사자수)를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 DB는 구직자의 성별,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 취약계층 유형, 경력 및 이력사항과 희망직종과 같은 구직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업급여 DB는 수급자유형(상용, 일용, 자영업자), 피보험기간과 변경 전 임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고용서비스 DB는 지원서비스 참여자의 서비스유형과 참여일 및 종료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본고의 분석을 위한 해당 자료들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의 매출액이나 노

동비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데이터 활용의 아쉬운 부분과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행정자료들을 결합한 매칭자료를 대상으로 한 생존분석 추정 결과를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이 각 개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 유형별,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유형별 차이에 따른 고용효과의 격차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자료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3년~2022년 고용보험 DB와 워크넷 DB 자료, 실업급여 DB 자료와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 자료의 청년층(19~34세)³⁾ 통합자료를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DB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각 개인의 고용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전수행정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워크넷 DB 자료 역시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청년층 각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지급유형 및 이직 사유 등 세부적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 실업급여 DB자료도 함께 분석 자료로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지원이 청년층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 자료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행정데이터 자료 간 매칭은 비식별 처리하여 제공된 ‘암호화KEY 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행정데이터 간 매칭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 DB 및 사업장 DB 자료를 연계하고, 2단계로 해당 연계자료에 워크넷DB 자료를 매칭하고, 3단계로 앞서의 3개 행정데이터 연계자료에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 자료를 매칭 하였다. 4단계로 4개 행정데이터 간 매칭자료의 ‘생년 월’ 변수를 활용하여 각 개인별 연령 변수를 생성하고, 해당 변수를 기준으로 19~34세 연령층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청년층 연령을 19~34세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고졸청년이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 19세를 하한연령으로 설정한 것이며, 상한연령은 표본

3) 해당 청년층 기준은 「청년기본법」 상에서 정의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에도 부합됨(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2. 9. 13.).

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4년제 대졸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만 34세로 규정하였다. 이는 OECD에서 규정하는 15~24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최근 한국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가 1~3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바로 나오지 못하고 취업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연령을 19~34세로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 계층 분류는 워크넷 DB의 ‘여성가장여부(Y/N)’, ‘재활대상여부(Y/N)’, ‘장애여부(Y/N)’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즉, 본고의 분석에 활용한 ‘취약계층 여부’는 각 항목별 ‘Y’로 응답한 경우 취약계층(0), 일반(1)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추정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비자발적 실업 경험’은 실업급여 DB의 ‘이직사유코드’ 변수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해당변수를 고려하였다.

2.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청년층의 취업 및 고용유지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앞서 제시한 매칭 자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부유형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청년층 취업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부분의 분석을 위한 추정 방법으로는 생존분석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위험모형(hazard model)을 활용하여 생존분석을 수행하였다. 생존분석의 방법론은 크게 모수법과 비모수법으로 분류된다. 해당 방법론을 적용한 초기 연구를 보면 해외에서는 Carrol and Delacroix(1982)가 신문사의 생존에 대해 설립연도별로 그룹을 분류하고 연령별 생존함수를 Gompertz로 모수 추정하여 제시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국내 연구로는 이상호(1998)가 중소기업 생존 요인을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⁵⁾

4) 참고로, 실업급여 DB의 ‘이직사유코드’는 11=전직, 자영업/12=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13=질병, 부상, 노령 등/14=징계해고/15=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22=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23=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4=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변동/25=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31=정년/32=계약기간 만료/33=공사종료/41=고용보험 비적용/42=이중고용/49=기타로 분류됨.

5) 이상호(1998)에서는 Cox의 비모수 비례위험모형을 프로그래밍하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한국기

본 연구에서도 비모수법을 적용하며, 비모수 방법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모형인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Cox PH)을 추정모형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모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콕스 회귀모형은 생존과 관련된 여러 개의 설명 변수들이 있을 때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다. 해당 모형은 생존시간에 대해 어떠한 분포 형태도 가정하지 않으므로 비모수적인 분석 방법이지만, 모형에 근거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는 점이 모수적 방법과 유사하여 해당 모형을 준모수 모형이라고 한다(송혜향 외, 2001).

콕스 회귀모형은 t 시점에서의 로그(log) 위험함수를 여러 개의 설명 변수들의 선형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즉 만약 p 개의 설명 변수가 있는 콕스 모형에서 i 번째 개인의 설명 변수값이 $x_i' = (x_{i1}, x_{i2}, \dots, x_{ip})$ 이고, 회귀모형 계수가 $\beta = (\beta_1, \beta_2, \dots, \beta_p)$ 라면 콕스 추정모형은 다음의 (1) 식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h_i(t) &= h_0(t) \exp(\beta' x_i) \\ &= h_0(t) \exp(\beta_1 x_{i1} + \beta_2 x_{i2} + \dots + \beta_p x_{ip}) \end{aligned} \quad (1)$$

여기에서 $h_0(t)$ 는 기저 위험함수를 의미하며, 이는 위험함수에 대한 설명 변수들의 영향이 전혀 없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수치가 '0'의 값을 갖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각 변수를 전체 개인들의 평균값으로 뺀 변수로 다시 정의하게 된다. 그리고 위험함수(hazard function), 즉 $h(t)$ 는 다음의 (2) 식과 같다.

$$\begin{aligned} h(t) &=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 \mid T \geq t)}{\Delta t} \\ &= \frac{1}{\Pr(T \geq t)} \lim_{\Delta t \rightarrow 0} \frac{\Pr(t \leq T < t + \Delta t)}{\Delta t} = \frac{f(t)}{S(t)} \end{aligned} \quad (2)$$

여기에서 t 시점까지 생존한 개인이 t 시점 바로 직후에 순간적으로 실패할 확률을 '순간 위험률'이라고 하며, $S(t)$ 는 생존함수로서 t 시점까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업총람에 기재된 상장기업, 등록법인, 외감기업 118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이상호 (1998), “중소전자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참고).

개인일 확률이다. 그리고 $f(t)$ 는 t 시점에 실패(실업)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

또한 콕스 회귀모형은 비례적 위험함수 가정 하에서 출발하고 있어, 콕스 비례 위험회귀모형(Cox's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이라고도 부른다.⁶⁾

콕스 비례위험(Cox proportional hazard) 모형은 강건(robust)한 면은 있으나(Li et al., 1996), 생존분석에서 실제 이벤트가 생존 기간에 꾸준히 실패(실업)하여 실패 표본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즉 중도 절단된(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데이터는 통계적 설명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높은 비중의 중도절단데이터(heavy censoring)를 처리하는 것이 숙제로 알려져 있다(Sposto et al., 1992; Sy and Talyor, 200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의 행정 DB 매칭 자료로 대규모 표본에 해당되므로, 앞서 언급한 콕스 비례위험회귀모형의 추정을 위한 전제조건에 부합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해당 행정 DB 매칭 자료를 대상으로 콕스 비례위험(Cox proportional hazard)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정은 고정효과 패널 모형(fixed effects panel model)을 적용하였다. 패널 모형은 패널 개체의 특성을 의미하는 시간 불변 오차항의 추론(inference) 방식에 따라 고정효과 모형이나 확률효과 모형(random effects panel model)을 사용하게 되는데,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인 경우 시간불편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어서 확률효과 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민의식·최필선, 2009). 고정효과는 오차항과 설명변수 간의 임의의 상관관계를 허용하지만 확률효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정효과가 확률효과보다 더 효율적인 분석모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정효과 패널 모형에 대한 추정 후, 해당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IV. 국내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현황 및 취업 특성

1. 기초통계

먼저, 추정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순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으며, 해당 기초통계는 여러 연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성별 비

6) 박진경 외(2012),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pp. 262-263 참고.

중은 여성이 57.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 연령층은 30~34세 연령층의 비중이 4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분석대상 자료에서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실업급여 DB의 매칭자료 구축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진입 자체가 남성에 비해 어려운 여성 청년층이 다수 포함된 데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 통계량

변수명		비중 (%)	관측치수
성별	남성	42.92	4,499,905
	여성	57.08	5,983,622
연령층	19~24세	13.30	1,771,796
	25~29세	39.18	5,220,352
	30~34세	47.53	6,333,16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7	248,927
	고졸	37.53	3,933,671
	전문대졸	25.27	2,648,377
	대졸	33.62	3,524,176
	대학원졸 이상	1.21	127,091
입직 형태	신입	63.32	6,636,900
	경력	36.68	3,845,021
전공계열	인문	9.74	801,570
	사회	28.39	2,336,187
	교육	4.35	358,095
	공학	25.63	2,109,623
	자연	9.45	777,683
	의약	7.37	606,822
	예체능	15.07	1,240,371
자격증 유무	유	20.31	3,145,788
	무	79.69	12,345,079
평균 구직기간(단위: 일)		116.19(최소값: 1일 / 최대값: 1,066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및 실업급여DB 매칭 자료(2013~2022).

다음으로 교육 수준은 고졸(37.53%), 대졸(33.62%), 전문대졸(25.27%) 순으로 나타났다. 입직 형태는 신입이 63.32%로 $\frac{2}{3}$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은 사회 계열(28.39%), 공학 계열(25.63%), 예체능 계열(15.07%)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자격증 유무의 경우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79.69%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평균 구직기간은 116.19일이었다.

2. 국내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현황

다음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의 희망 일자리 고용형태 비중 현황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청년층 구직자의 유형별 희망 고용형태 비중

(단위: %)

변수명		상용직	계약직	시간제	일용직	관계없음
전체		56.83	4.13	4.53	2.07	32.44
성별	남성	56.77	4.22	4.14	1.83	33.04
	여성	56.88	4.06	4.82	2.26	31.99
연령별	19~24세	48.85	6.41	6.76	4.69	33.39
	25~29세	54.82	4.38	4.83	2.27	33.69
	30~34세	56.69	3.56	3.91	1.50	31.34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64.10	4.93	3.61	2.19	25.16
	고졸	52.97	5.41	4.88	2.76	33.98
	전문대졸	58.30	4.23	4.27	1.79	31.42
	대졸	59.78	2.62	4.33	1.50	31.77
	대학원졸 이상	49.92	2.85	6.10	2.37	38.76
입직 형태별	신입	59.12	3.86	4.11	1.90	31.01
	경력	52.88	4.59	5.25	2.38	34.91
전공 계열별	인문	57.75	3.23	4.23	1.95	32.85
	사회	60.66	3.05	3.84	1.47	30.99
	교육	43.41	4.35	10.65	4.76	36.84
	공학	61.49	3.97	3.48	1.39	29.67
	자연	57.18	3.74	4.57	1.87	32.64
	의약	55.47	3.80	5.38	2.24	33.11
	예체능	50.60	5.15	5.41	2.85	35.99
자격증 유무	유	64.02	2.95	2.65	0.88	29.51
	무	53.75	4.64	5.33	2.59	33.69
지역별1	수도권	56.19	4.12	4.74	2.23	32.73
	비수도권	57.67	4.15	4.25	1.88	32.06
지역별2	수도권	56.19	4.12	4.74	2.23	32.73
	6대 광역시	57.42	4.04	4.17	1.85	32.52
	그 외 지역	57.93	4.26	4.33	1.91	31.57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57.78	3.94	4.24	1.80	32.23
	중규모기업	55.10	4.61	2.47	1.48	36.35
	대기업	41.58	8.42	6.84	4.74	38.42
관측치 수	10,482,255	5,957,295	432,910	474,415	217,464	3,400,17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및 실업급여DB 매칭 자료(2013~2022).

청년층 중 약 56.83%는 상용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직, 시간제 및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취업을 희망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10.73%). 희망하는 고용 형태의 성별 격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년층 내에서도 연령별 차이는 발생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고용형태로 상용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중졸 이하 청년층의 상용직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64.10%), 대학원졸업 이상 청년층의 경우 상용직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낮았다(49.92%). 입직 형태의 경우 신입일수록 향후 희망 일자리는 상용직을 선호하였으며, 사회 및 공학

〈표 4〉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직종 비중

(단위: %)

	1순위	2순위	3순위
관리직	2.48	2.04	2.08
경영·행정 사무직	31.85	41.08	41.55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0.48	0.33	0.31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98	2.69	2.35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6.20	4.53	3.90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48	1.93	1.97
법률 및 관련 행정 전문직	0.42	0.36	0.41
사회복지 및 종교직	3.72	3.41	2.89
보건 및 의료직	7.63	2.39	1.72
경찰, 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1.01	1.06	1.11
문화·예술 및 디자인, 방송직	8.76	7.23	6.83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0.93	0.65	0.6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36	5.99	5.56
돌봄, 보건 및 개인생활 지원 서비스직	3.14	3.02	2.69
운송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2.92	3.25	3.26
영업 및 판매직	4.12	5.70	6.40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17	1.08	1.02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4.62	4.01	3.3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66	3.34	3.02
석유 및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0.54	0.54	0.56
섬유 관련 기계 조작직	0.13	0.12	0.11
식품가공 관련 기능원 및 기계 조작직	1.34	1.18	4.01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47	0.56	0.58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	2.36	3.33	3.44
농림·어업 분야 종사직	0.25	0.19	0.23
관측치 수	10,483,524	2,497,894	911,738

주: 직종 분류는 통계청-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 항목표의 중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수행하였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및 실업급여DB 매칭 자료(2013~2022).

〈표 5〉 청년층 구직자의 유형별 희망 임금 비중

(단위: %)

변수명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전체		0.49	34.22	56.41	8.88
성별	남성	0.61	25.61	61.36	12.42
	여성	0.40	40.60	52.73	6.26
연령별	19-24세	0.96	44.55	48.74	5.75
	25-29세	0.53	35.76	56.53	7.18
	30-34세	0.39	30.76	57.83	11.0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0.75	58.66	33.95	6.63
	고졸	0.60	41.77	50.27	7.37
	전문대졸	0.46	36.91	56.18	6.44
	대졸	0.38	22.80	64.93	11.90
	대학원졸 이상	0.40	10.41	61.04	28.15
전공 계열별	인문	0.41	34.01	58.40	7.18
	사회	0.41	35.92	57.02	6.64
	교육	0.65	33.94	57.81	7.61
	공학	0.51	23.92	62.83	12.75
	자연	0.41	31.16	60.44	7.99
	의약	0.42	26.08	58.12	15.38
	예체능	0.48	36.67	54.49	8.37
고용 형태별	상용직	0.33	33.85	57.10	8.72
	계약직	0.60	32.16	55.44	11.81
	시간제 (계약기간 無)	0.87	35.12	54.80	9.21
	시간제 (계약기간 有)	1.25	36.79	51.95	10.01
	관계없음	0.68	34.93	55.75	8.64
경력 연수별	신입 (0년)	0.51	39.85	53.26	6.38
	1년 미만	0.71	40.10	52.28	6.91
	1년 이상~2년 미만	0.51	34.63	58.01	6.84
	2년 이상~3년 미만	0.43	28.38	62.34	8.85
	3년 이상~5년 미만	0.42	21.71	63.98	13.88
	5년 이상~10년 미만	0.40	14.93	63.60	21.07
	10년 이상	0.37	11.84	62.09	25.70
관측치 수	9,357,660	46,061	3,202,183	5,278,258	831,15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및 실업급여DB 매칭 자료 (2013~2022).

전공계열 청년층 그룹에서 상용직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높았다(각각 60.66%, 61.49%). 또한 자격증이 있는 청년일수록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상용직이었으며, 중소기업 재직경험 청년층일수록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상용직 비중이 높았다.

그에 반해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의 지역 간 격차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의 향후 희망 직종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앞서의 <표 4>와 같다.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경영 및 행정 사무직이었으며(1순위 31.85%, 2순위 41.08%, 3순위 41.55%), 그 다음으로는 문화·예술 및 디자인, 방송직(1순위 8.76%), 보건 및 의료직(1순위 7.63%), 그리고 공학 전문가 및 관련직(1순위 6.20%)의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청년층 구직자들의 향후 희망 임금수준 현황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앞서의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청년층의 희망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희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희망 임금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 및 자연계열 청년층일수록 희망하는 임금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의 안정적인 근로여건에서 근로하였던 청년일수록 향후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비상용직 근로경험 청년층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 연수가 높은 청년층일수록 향후 희망하는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 국내 청년층의 취업 현황 및 특성

청년층 구직자의 자격상실 후 첫 구직활동까지 평균 소요 기간의 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구직활동 소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났으며, 30~34세 연령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문대졸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입직형태별로는 신입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더 길었으며, 전공별로는 공학계열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고(113.4일), 인문(119.3일)과 예체능(119.1일) 전공계열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비자발적 실업 경험 청년일수록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인 청년층일수록 소요되는 평균 구직기간이 길었으며, 기업규모별로는 중간규모

〈표 6〉 청년층 구직자의 자격상실 후 첫 구직활동까지 평균 소요 기간의 유형별 현황

(단위: 일)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남성	114.71	68.37	1	972
	여성	117.30	67.92	1	1,066
연령별	19~24세	118.16	73.52	1	1,066
	25~29세	118.41	70.64	1	922
	30~34세	113.90	64.99	1	972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27.93	73.14	1	523
	고졸	115.34	68.25	1	1,066
	전문대졸	114.56	67.34	1	667
	대졸	117.52	68.33	1	972
	대학원졸 이상	116.37	61.34	1	491
입직 형태별	신입	117.56	72.45	1	1,066
	경력	113.81	59.80	1	820
전공 계열별	인문	119.32	68.24	1	475
	사회	115.05	67.42	1	492
	교육	117.90	62.79	1	504
	공학	113.41	69.24	1	820
	자연	116.28	67.31	1	972
	의약	115.70	65.44	1	667
	예체능	119.09	66.83	1	611
자격증 유무별	유	108.69	67.78	1	972
	무	119.43	68.02	1	1,066
자격상실 사유별	자발	115.05	79.14	1	667
	비자발	117.02	62.22	1	1,066
경력 연수별	신입 (0년)	117.53	72.67	1	1,066
	1년 미만	105.87	58.81	1	431
	1년 이상~2년 미만	109.09	57.32	1	582
	2년 이상~3년 미만	110.09	57.19	1	473
	3년 이상~5년 미만	113.45	59.52	1	820
	5년 이상~10년 미만	125.19	64.93	1	444
	10년 이상	131.68	67.92	1	418
지역별1	수도권	118.34	68.53	1	820
	비수도권	113.39	67.49	1	1,066
지역별2	수도권	118.34	68.53	1	820
	6대 광역시	115.09	67.60	1	1,066
	그 외 지역	111.60	67.33	1	972
기업 규모별	중소기업	115.30	67.58	1	435
	중규모기업	117.31	69.21	1	367
	대기업	104.23	68.15	1	1,06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및 실업급여DB 매칭 자료 (2013~2022).

기업 재직 이력을 가진 청년층 그룹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 비해 약 3일~7일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V. 실증분석 결과

1. 청년층 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다. 성별, 교육수준, 전공 및 취약계층 여부 등 개별적 특성과 경력, 근로경험 고용형태, 임금 수준 및 기업규모와 같은 근로 이력, 그리고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공공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참여 경험 등 구직자 개인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먼저 청년층의 취업확률이 다양한 유형에 의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콕스 비례위험 모형의 추정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의 <표 7>에 제시된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 그룹은 미 참여 그룹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았다. 이처럼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과 여성 청년층의 취업 확률이 낮은 것은 이들 계층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 계층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청년층 그룹임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이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공적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았으며, 특히 전문대졸 청년층 그룹의 취업 확률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입직 형태가 신입의 경우보다 경력자의 경우 취업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이 없는 청년층 그룹에 비해 고용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전공의 경우 인문계열에 비해 공학계열 전공 청년층이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근로이력과 관련해서는 상용직 근로 이력 보유 청년층의 취업 확률이 높았으며, 대규모 기업에 근무하였던 청년층이 다시 취업할 확률이 소규모 기업에 근무하였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용서비스를 수혜 받은 지역이 수도권에 해당되는 청년층 그룹이 비수도권의 수혜 그룹보다 취업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보수액이 높았던 청년

〈표 7〉 콕스 비례위험 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통한 취업 확률분석 결과

		Coef.	Std. Err.	Hazard Ratio	t-값	p-값
고용서비스 참여 여부 (기준: 미 참여)	고용서비스 참여	-0.0191***	0.0041	0.9811	-4.66	0.000
성별(기준: 남성)	여성	-0.0103**	0.0042	0.9898	-2.45	0.014
교육 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3132***	0.0293	1.3678	10.69	0.000
	전문대졸	0.3273***	0.0293	1.3873	11.17	0.000
	대졸	0.2955***	0.0293	1.3438	10.10	0.000
	대학원졸 이상	0.3120***	0.0332	1.3662	9.40	0.000
입직 형태(기준: 신입)	경력	0.0317***	0.0103	1.0323	3.08	0.002
현재 경력 형태 (기준: 신입)	경력	0.0975***	0.0102	1.1024	9.51	0.000
자격증(기준: 없음)	있음	0.0873***	0.0039	1.0912	22.68	0.000
전공 (기준: 인문계열)	사회계열	0.0094	0.0067	1.0094	1.39	0.163
	교육계열	-0.0103	0.0108	0.9898	-0.95	0.340
	공학계열	0.0267***	0.0072	1.0270	3.71	0.000
	자연계열	-0.0022	0.0082	0.9978	-0.27	0.785
	의약계열	0.0039	0.0090	1.0039	0.44	0.662
	예체능계열	-0.0056	0.0075	0.9945	-0.74	0.457
근로경험 고용형태 (기준: 상용직)	계약직	-0.0348***	0.0089	0.9658	-3.91	0.000
	시간제	-0.0529***	0.0079	0.9485	-6.69	0.000
근로경험 임금 수준 (기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0.0758***	0.0290	1.0787	2.61	0.009
	200~300만원 미만	0.0578**	0.0289	1.0595	2.00	0.046
	300만원 이상	0.0693**	0.0295	1.0718	2.35	0.019
근로경험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	중규모기업	0.1097**	0.0472	1.1160	2.32	0.020
	대기업	0.1811**	0.0917	1.1985	1.97	0.048
고용서비스 수혜지역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	0.0196***	0.0037	1.0198	5.30	0.000
취약계층 여부 (기준: 취약계층)	일반	0.0203***	0.0070	1.0205	2.92	0.004
월평균 보수액(단위: 원) 자연 대수 값		-0.1822***	0.0034	0.8335	-53.07	0.000
Log likelihood		-3855606.2				
LR 검정통계량 χ^2 (p-값)		4,437.56*** (0.0000)				
N		315,761				

주: 1)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안은 기준변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실업급여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DB 매칭 자료 (2013~2022).

층의 경우 다시 취업할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여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과 비교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이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 이들 취약 청년층에 대한 공적 노동 시장 정책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청년층 근로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다음으로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개별적 특성과 근로 이력 및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정책이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정효과 패널 모형에 대한 추정을 수행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8>에 제시되어 있으며, 추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서비스 참여는 취업 청년층의 근로소득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 청년층의 근로소득이 남성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청년층에서 여전히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의 경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일반적인 영향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입직 시기가 아닌 현재 기준 경력자의 근로소득이 신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자의 근로소득이 중졸 이하보다 약 3.83% 낮게 나타났고, 전문대졸과 고졸도 중졸 이하 보다 임금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졸 이하의 관찰치가 적고, 고정효과 모형의 특성상 분석 기간 내 교육수준의 변화가 있었던 이들이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다음으로 자격증이 있는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자격증 무소유 청년층 취업자에 비해 높았으며, 인문계열 전공 청년층에 비해 의약 및 교육, 공학계열 전공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직 근로경험과 이전 직장의 임금 수준이 현재 취업한 청년층의 근로소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경험 기업의 규모는 현재 취업한 청년층의 근로소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직장의 기업규모가 클수록 현재 취업한 청년층 근로자의 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수혜지역의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수혜 받은 청년층의 근로소득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년층의 근로소득이 취약계층 청년층 근로소득보다 높았으나 계수 값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표 8〉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영향 추정 결과(고정효과 패널모형 적용)

종속변수 : 월평균 보수액 자연 대수 값		Coef.	Std. Err.	t-값	p-값
고용서비스 참여 여부 (기준: 미 참여)	고용서비스 참여	-0.0555 ***	0.0044	-12.57	0.000
성별(기준: 남성)	여성	-0.1027 ***	0.0044	-23.19	0.000
교육 수준 (기준: 중졸 이하)	고졸	-0.0554 ***	0.0130	-4.27	0.000
	전문대졸	-0.0489 ***	0.0132	-3.71	0.000
	대졸	-0.0383 ***	0.0131	-2.92	0.004
	대학원졸 이상	0.0125	0.0172	0.73	0.467
입직 형태(기준: 신입)	경력	-0.0009	0.0045	-0.21	0.837
현재 경력 형태 (기준: 신입)	경력	0.0148 ***	0.0044	3.34	0.001
자격증(기준: 없음)	있음	0.0158 ***	0.0025	6.38	0.000
전공 (기준: 인문계열)	사회계열	0.0160 **	0.0066	2.43	0.015
	교육계열	0.1000 ***	0.0103	9.73	0.000
	공학계열	0.0624 ***	0.0070	8.92	0.000
	자연계열	-0.0488 ***	0.0082	-5.97	0.000
	의약계열	0.1206 ***	0.0092	13.12	0.000
	예체능계열	-0.0101	0.0076	-1.34	0.182
근로경험 고용형태 (기준: 상용직)	계약직	-0.0268 ***	0.0054	-4.96	0.000
	시간제	-0.0142 ***	0.0047	-3.03	0.002
근로경험 임금 수준 (기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0.0180	0.0116	-1.55	0.120
	200~300만원 미만	-0.0110	0.0116	-0.95	0.343
	300만원 이상	-0.0011	0.0121	-0.09	0.929
근로경험 기업규모 (기준: 중소기업)	중규모기업	0.2342 ***	0.0472	4.96	0.000
	대기업	0.1755 ***	0.0622	2.82	0.005
고용서비스 수혜지역 (기준: 비수도권)	수도권	-0.0874 ***	0.0027	-32.13	0.000
취약계층 여부 (기준: 취약계층)	일반	0.0007	0.0022	0.33	0.743
상수항		14.1765 ***	0.0185	768.15	0.000
R^2	overall	0.0177			
	between	0.0425			
	within	0.0415			
F 검정통계량 (p-값)		124.94 *** (0.0000)			
N		221, 223			

주: 1) *는 10% 유의수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2) ()안은 기준변수.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DB, 워크넷DB, 실업급여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DB 매칭 자료 (2013~2022).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DB, 워크넷 DB, 일모아 DB, 실업급여 DB 및 고용서비스 사업내역 DB의 통합자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참여 현황과 고용 성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층 구직자의 희망 일자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년층 중 약 56.83%는 상용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청년층 내에서도 연령별 차이는 발생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희망 고용형태로 상용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다. 신입일수록 향후 희망 일자리는 상용직을 선호하였으며, 사회 및 공학 전공계열 청년층 그룹에서 상용직 취업 희망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자격증이 있는 청년일수록 향후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상용직이었으며, 중소기업 재직경험 청년층일수록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상용직 비중이 높았으며, 향후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의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은 경영 및 행정 사무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 및 디자인, 방송직, 그리고 보건 및 의료직과 공학 전문가 및 관련직의 비중이 높았다. 또한 청년층의 희망 임금수준의 성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층이 높고 경력 연수가 높을수록 희망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났으며, 30~34세 연령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문대졸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공학계열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짧고, 인문과 예체능 전공계열 청년층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다. 또한 비자발적 실업 경험 청년일수록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길었으며, 경력 연수가 5년 이상이고 중간규모 기업 재직 이력을 가진 청년층 그룹의 평균 구직활동 소요기간이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콕스 비례위험 모형 추정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확률이 다양한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공공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층 그룹과 여성 청년층 및 취약 계층 청년들이 취업할 확률이 낮게 나타나, 이들 청년층 그룹이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 해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 청년층 그룹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공

적 지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정효과 패널 모형 추정을 통해 개별적 특성과 근로 이력 및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정책이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여성 청년층의 근로소득이 남성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한 이후에도 근로소득 측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내에서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근로소득 격차는 크지 않았으며, 경력과 자격증 보유, 의약 및 교육, 공학계열 전공 청년층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기업규모가 클수록 현재 취업한 청년층 근로자의 소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 고용서비스를 수혜 받은 청년층의 근로소득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상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를 논의하고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속되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고용 불안정성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와 인적자본과 일자리 간의 불일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청년고용의 문제,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전공별 취업가능성과 그 성과의 계층화 문제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유형별 지원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세대 간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하여 국내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의와 전략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입장에서는 당분간의 실업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구직활동을 지속하려는 경향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강할 수 있다. 즉, 당장 취업 가능한 일자리가 있다라도 안정적이고 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가 청년층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년층의 행태를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청년층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정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이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등을 선호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서는 이 같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며 상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 자체도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수준 개선 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 정보 공개와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국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취업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와 관련된 대표적 사이트, 공통된 하나의 창구가 운영되면 공개 정보의 점진적 확대와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청년층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 들여야 할 비용과 시간 역시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 능력 수준은 현재의 일반적 학교교육만을 밟아온 대부분의 청년층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적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해 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행정망 자료에 대한 매칭자료를 구축 후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및 참여 현황과 고용 성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한 워크넷DB를 포함한 행정망 매칭자료 역시 표본자료라는 점에서,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전반에 대한 현황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직업훈련 참여, 인턴십 경험 등 구직자의 추가적인 개인적 노력 역시 중요한 부분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 변수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성과에 대한 검토와 함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잔존할 확률에 대한 검토이나, 본고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역시 연구의 한계이다. 일례로, 앞서 <표 8>의 교육수준 영향 결과를 보면 대졸자, 전문대졸과 고졸의 근로소득이 중졸 이하보다 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졸 이하의 관찰치가 적고, 분석 기간 내 교육수준의 변화가 있었던 그룹들이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졸을 기준 집단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단순히 분석대상 전체집단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통제변수(설명변수)를 반영하여 추정한 내용만이 담겨져 있어, 집단을 세분화하고 세부 유형별 모형에 대해 추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 학력별, 계열별로 집단을 분리시켜 추정하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추정결과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재 본 연구의 추정 결과는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1. 관계부처합동, “쉬웠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단계별 지원 강화” 보도자료 및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2023.
2. 김대일, “임금분포 확대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1호, 2020, pp. 1-31.
3. 김안국·강순희, “자격취득의 결정요인 및 취업·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2004, pp. 1-25.
4. 김영민·조재한, “산업생산활동과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분석,”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2호, 2021, pp. 99-119.
5. 김유빈·강신혁·김영아, 『청년층 일자리 현황과 변화 전망』, 정책연구 2020-03, 한국노동연구원, 2020.
6. 김종성·이병훈, “대졸청년층의 비경활상태 결정요인에 관한 중단연구,” 2012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자료집, 2012, pp. 235-253.
7. 남기곤, “노동시장 :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미취업 결정요인 및 낙인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pp. 99-125.
8. 박성재·반정호,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제29권 제3호, 2006, pp. 29-50.
9. 박진경·오광호·김민수, “폭스 비레위험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업종별 생존율 및 생존요인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2호, 2012, pp. 257-269.
10. 박철성·최강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9집 제2호, 2021, pp. 157-184.
11. 송혜향·정갑도·이원철, 『생존분석』, 청문각, 서울, 2001.
12. 안주엽·홍서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2002, pp. 47-74.
13. 오태희·이장연, “청년층 근로자의 이직을 통한 임금 사다리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제70집 제3호, 2022, pp. 97-141.
14. 오유진·김교성, “성별·학력별 청년 노동시장의 이행 궤적과 유형 비교,” 『노동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19, pp. 1-35.
15. 우해봉·윤인진, “경쟁리스크 생존모형을 통한 청년층의 첫 일자리 획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2008, pp. 225-250.
16. 유경준, “2019년 비정규직 변동의 원인 분석: 2019년 급증한 비정규직 87만명은 어디서 왔는가?”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4호, 2019, pp. 69-96.
17. 이규용·김용현,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2호, 2003, pp. 69-93.
18. 이상호, “중소전자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4권 제2호, 1998, pp. 93-112.
19. 이주미·김태완,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2022. 03)』, 2022, pp. 8-20.
20. 이현성,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2010, pp. 47-84.

21. 최명섭 · 김준혁 · 최태람, “우리나라 청년층의 요인별 집단별 임금격차 분해,” 『국토계획』, 제56권 제2호, 2021, pp.159-170.
22. Carroll, G. R., and J. Delacroix, “Organizational Mortality in the Newspaper Industries of Argentina and Ireland: An Ecological Approa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7, No. 2, 1982, pp.169-198.
23. Duncan, O., “A Socioeconomic Index for All Occupations,” A. J. Reiss Jr. (Ed.), *Occupations and Social Status*, Free Press, New York, 1961, pp.109-138.
24. Granovetter, M.,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1995.
25. ILO, “COVID-19: Public Employment Services and Labour Market Policy Responses,” *ILO Policy Brief*, 2020.
26. Kikuchi, S., S. Kitao, and M. Mikoshiba, “Who Suffers from the COVID-19 Shocks? Labor Market Heterogeneity and Welfare Consequences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Vol. 59, 2021, pp.1-46.
27. Kluge, J., S. Puerto, D. Robalino, JM. Romero, F. Rother, and Jonathan Stöterau, Felix Weidenkaff & Marc Witte, “Do Youth Employment Programs Improve Labor Market Outcomes?” *A Quantitative Review, World Development*, Vol. 114, 2019, pp.237-253.
28. Kim, Jiwoon, “The Recent Ri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A Flow Decomposition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38, No. 3, 2022, pp. 445-477.
29. Jordi Jofre-Monseny a, José I. Silva b. and Javier Vázquez-Grenno, “Local Labor Market Effects of Public Employment,”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 82, 2020.
30. Lambovska, M., Sardinha, B. and Belas Jr. J.,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Youth Unemployment in the European Union,” *Ekonomicko-manazerske spektrum*, 15/2021 No.1, 2021, pp.55-63.
31. Marian Moszoro, “The Direct Employment Impact of Public Investment,”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No. 2021/131, 2021.
32. Kim, Seik, and Hwa Ryung Lee, “Statistical Discrimination, Employer Learning, and Employment Gap by Race and Educ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36, No. 1, 2020, pp.5-27.
33. Sy, J. P., and J. M. G. Taylor, “Standard Errors for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Cure Model,” *Mathematical and Computer Modelling*, Vol. 33, No.12/13, 2001, pp.1237-1251.
34. Till von Wachter, “The Persistent Effects of Initial Labor Market Conditions for Young Adults and Their Sour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4, No. 4, 2020, pp.168-194.

A Study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Status and Employmen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in Korea

Kyoung-Ah Kim*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labor market entry status and employmen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in Korea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integrated data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DB, Worknet DB, Ilmoa DB, Unemployment Benefit DB, and Employment Service Business Details DB.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bout 56.83% of the young people hope to get a full-time job, and even within the youth group, the older they get, the more they prefer a full-time job as their desired form of employment, and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majoring in social studies and engineering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ople wanting to get a full-time job. In addition, the more young people have experience working 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more likely they are to have full-time employment, and the most preferred occupations are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office work.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 people in Korea, the job search period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ng for women, young people, middle school graduates or younger, those in humaniti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those with experience of involuntary unemployment.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domestic youth, it was found that youth groups that participated in public employment service support projects, female youth, and youth from vulnerable groups had a low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making it difficult for these youth groups to enter the labor market itself.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would fall into the employment-vulnerable class that was experiencing difficulties. Therefore, it appears that there is a need to explore additional public support policies to help these youth groups enter the labor market.

Key Words: employment performanc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panel regression analysis

JEL Classification: J3, J6, C5

Received: Jan. 29, 2024. Revised: May 30, 2024. Accepted: July 8, 2024.

* Associate Research Fellow, Small Enterprise Policy Research Center, Policy Research Team, 6F, Lawyers Tower, 1966, Hannuri-daero, Sejong-si, 30147, Korea, Phone: +82-44-960-7023, e-mail: kka@semas.or.kr